

대면접촉 노동자 89% “재난 기본소득 필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조사 54% 임금 줄고 46% 시간 줄어 배달 등 업무 4%만 임금 늘어 대리운전기사 99% 임금 감소

대면 접촉 서비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은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2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

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배달(식음료), 돌봄, 방과 후 교사, 보험, 택배·택시·버스, 학습지 등 대면 접촉 직종 노동자 348명을 대상으로 임금, 갑질, 근무시간, 휴가, 가정경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88명)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자도 46.6%(162명)였는데 대면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 자체가 줄고 임금이 산정되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중 4%(14명)는 임금이 늘었다

데, 대부분 택배·택시서비스 종사자였다. 매장 방문을 꺼려하는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증가로 주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조사 대상자 중 54.3%(189명)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사가 물품, 소독제, 방역 등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3%는 코로나19가 가정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크다고 답해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의 89.7%(312명)는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고 공감했다.
대리운전 기사 348명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이뤄졌는데 99.4%(346명)이 임금이 감소했고 76.7%(267명)이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정찬호 센터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업주 및 관계 기관의 심도 있는 관찰과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승객 51% 격감 감차 운행 4월 5일까지 연장

광주시는 “개학 연기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 운행 기간을 4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감차 운행 기간은 애초 이날까지였으나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더 연기되자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연장을 신청했다.
3월 첫째 주 광주 시내버스 이용자는 137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만 5000여명)보다 51%나 줄었다.
손영석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용 승객을 분석하면 현재 12%인 감차율을 더 높여야 할 실정”이라며 “직장인들의 출·퇴근 불편을 우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운행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20일 광산구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여파로 지점을 찾은 소상공인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 코로나 피해농가 돕기 오늘 농축산물 공동구매 행사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23일 시청 1층 시민실에서 ‘농축산물꾸러미 공동구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고,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협력해 실시한다.
농축산물꾸러미는 관내 지역농협에서 생산된 두부(400g), 계란(10개), 방울토마토(500g), 고구마(1kg), 오이(3개), 가지(3개), 햇양파(500g), 대파(300g), 상추(200g), 미니새송이버섯(300g), 미나리(200g) 등 11개 품목으로 구성된 한 상자에 담아 시중보다 저렴한 2만원에 판매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행정력 총집중

광주시, 전국 최초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용자 이시장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광주시가 코로나19여파로 심각한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융자지원 정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을 찾

아 방문 시민을 응원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소한 광주신보 송정지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편리를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에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이후 하루 1000여건 이상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문의 및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자를 받기 위해 송정지점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913송정역시장의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광주시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용자를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5000만원 정도 용자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며 “임대료도 내기 힘들만큼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이자 1.5%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드려니 이번 용자를 마중물 삼아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고 빨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특례보증 업무에 고생하는 광주신보 직원들도 격려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 등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신청 폭증으로 업무량이 많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금액을 최대한 보증융자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어려운 노동지식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광주시 ‘내손안의 노동상식’ 4개 분야 법령·사례 설명

“앞으로 어려운 노동지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광주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책자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책자는 노동지식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켓용으로 발간된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은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 법령 및 사례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 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가 담겨 있고,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



동법상 모든 권리보장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와 남녀평등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을 설명해 놨다.
광주시는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노동현장 및 노동인권교육 참가자의 교재로 활용하고,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물론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주시노동협력관은 “내손안의 노동상식’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상생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동

광주시, 국비 등 65억원 투입 혁신프로젝트 등 15개 사업

광주시가 자동차·가전 등 대표산업 위기에 선제대응하고,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 사업비를 들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48억 5000만원, 지방비 16억5000만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혁신추진단과 함께 시행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12개, 일반사업 3개 등 총 15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이다.
광주시의 올해 사업중 지역혁신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은 국비 38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사업액이다.

광주시는 지방비 13억6000만원을 추가로 매칭해 52억4000만원 규모로 ‘이중위기(대표산업·인재유출) 선제 대응’, ‘수요-공급 균형기반 일자리창출’, ‘주력산업 융합 트랜스포메이션’ 등 3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3개 프로젝트는 ▲미래자동차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IoT-Air 가전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좋은 중소기업발굴 인증 및 구직자 매칭 지원 ▲대표산업 상생일자리 확산사업 ▲일자리 평가분석 및 고용기반 구축 ▲광주강소기업 대상 점프업 패키지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지원사업 ▲창업지원 브릿지형 벤처상품 개발 지원 ▲정년일자리 통합전달 체계구축 ▲퇴직 우수기술 전문기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내비게이션 지원 ▲음압 및 공기질 설비 전문인력 양성 ▲시장선도형 공기산업육성 기업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프로젝트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상공회의소, 광주디자인센터,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공기안전원 등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수행기관 10곳이 참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